

농가단위 소규모 식품가공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 식품가공농가 지원계획 마련 농가맛집 모델 개발 확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농업의 2,3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할 10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농촌진흥청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갖춘 전문성과 역량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가단위의 소규모 식품가공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도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전에도 농가단위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농가단위의 식품가공이 비즈니스 논리보다는 시장과 무관하게 단지 생산된 것을 판다는 생업논리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기술기반 및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 단위로 가공하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가공설비나 인허가 문제,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가가 직접 생산한 원료 농산물로 가공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공기술, 창업절차, 경영 및 마케팅, 판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지원계획의 과제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농촌여성 창업 성공 프로젝트, 두 번째는 농업인 농산물가공기술교육 강화, 세 번째는 새로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인 '농가맛집'의 모델을 개발 확산해나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할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농촌여성 창업 성공 프로젝트는 식품가공 여성 CEO의 성공신화 만들이게 목표를 두고 창업지원자금의 규모화 및 현실화, 식품가공기술지원단 운영, 창업기술교육 강화, 생산제품의 판로 촉진을 위한 수요창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한 여성 CEO가 3년 내 1억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했다. 식품가공 CEO의 성공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고자 지난 15~16일 한과·장류연구회원, 2008 신규창업농가 등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 농산물가공기술교육 강화는 농업기술센터가 산지 농?특산물의 가공을 전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센터의 가공장비를 보강하고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161개 센터 중 50%정도인 89개 센터에만 가공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 시·군센터에 가공교육장을 설치해 산지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인의 가공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인 '농가맛집'은 농촌여성의 내림솥씨와 향토음식을 지역의 문화와 접목한 농촌문화관광형 농가 레스토랑으로 주5일 근무제의 장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대안 관광과 웰-빙을 갈망하는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촌을 활력화할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농촌에 도입하고자 일본의 농가레스토랑을 견학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자 강원 강릉의 농사일바라지 음식, 충북 충주의 사과요리, 경남 산청 예담촌의 약선 요리 등을 발굴해 내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0개소의 농가맛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농축유통신문 -